

포스트/식민 여성성장소설의 젠더지리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서승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목차

- 1 여성성장소설의 반복과 차이
- 2 사상 공간의 재구성과 전복적 성장: 『북국의 여명』
 - 2.1 여성의 이동과 정체성의 전환
 - 2.2 역설적 공간의 창출과 ‘북국’의 지향
- 3 민족국가의 시공간과 모성 신화: 『벼랑에 피는 꽃』
 - 3.1 공간 재배치와 집단기억의 재/확인
 - 3.2 학교 만들기와 확대된 모성
- 4 계급과 민족, 성장의 도달점과 의미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2일 제16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좋은 토론으로 도움을 주신 이행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국문초록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박화성의 자전적 이력을 재구성한 신문연재소설로서 각각 1935년, 1957년에 발표되었다. 두 소설은 한국 사회에 병존하는 전근대적 남녀 차별과 근대적 공사 이분법, 그리고 이에 따른 공간 구획 및 젠더 배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여성성장소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북국의 여명』은 사회주의 이념의 정치성에 공명하던 식민지 시기 박화성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고, 『벼랑에 피는 꽃』은 이념과 사상의 다양성을 탐색한 식민 기억과 민족주의의 지평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도 크다. 이 글에서는 젠더 역학의 변동에 따른 공간 배치에 주목하는 젠더지리학의 방법론을 참조하며 소설을 분석했다. 『북국의 여명』이 목포, 도쿄, 경성이라는 세 공간, 그리고 ‘북국’이라는 장소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벼랑에 피는 꽃』은 목포와 경성의 공간적 입지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경성-서울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전자는 학문에서 사상으로, 자매애에서 동지애로 전환되는 이동의 궤적을 그려냈으며, 여성의 몸과 가정, 돌봄과 양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며 여성의 사상적 실천을 새롭게 조명했다. 후자는 식민지 시기 수난과 저항의 역사에 비추어 인물과 공간을 배치하는 한편, 엘리트 여성 교육자의 성공을 국가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형상화했다. 두 소설은 식민지 근대 극복을 위한 탈향-유학의 여정을 그려내는 한국근대 성장소설의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주인공의 젠더에서 비롯되는 모순과 갈등, 저항과 봉합의 국면들을 상이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성성장소설의 다양한 문법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국문핵심어: 박화성, 여성성장소설, 젠더지리학, 『북국의 여명』, 『벼랑에 피는 꽃』

1 여성성장소설의 반복과 차이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이십여 년의 시차를 두고 쓰인 박화성의 신문연재소설이다.¹ 인물 설정 및 세부적 에피소드가 상당수 겹치는 만큼 『벼랑에

피는 꽃』은 『북국의 여명』을 다시 쓴 서사라 할 만하다. 그러나 두 소설은 전혀 다른 사상적 기반과 주제 의식을 지니고 있다. 『북국의 여명』이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의 이동을 조명하고 있는 데 반해, 『벼랑에 피는 꽃』은 냉전체제하 반공 국가의 지정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소설은 식민지 시기에 포스트식민 시기로 이행하며 재조정된 박화성의 이념적, 문학적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일찍이 서정자는 『북국의 여명』이 박화성 장편소설의 원형이자 프롤레타리아 혁명 투사의 성장담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후에 쓰인 『벼랑에 피는 꽃』, 『눈보라의 운하』 등과의 관계 속에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² 그러나 그간의 연구사는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여성 지식인-사회주의자의 성과 사랑, 이념 문제가 어떻게 재현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박화성의 작가 의식 및 입지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등이 이들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이었다.³ 우선 김미현은 지식인소설 연구가 남성 작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여성 지식인소설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국의 여명』은 전

-
- 1 『북국의 여명』은 『조선중앙일보』(1935.4.1.~1935.12.4.)에 연재되었으며 2003년 서정자의 편찬으로 푸른사상사에서 단행본이 최초 출간되었다. 『벼랑에 피는 꽃』은 『연합신문』(1957.10.15.~1958.5.23.)에 연재된 후 1972년 삼중당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 2 서정자, 「‘주의자’의 성, 사랑, 결혼-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자유연애의 양면성」, 『현대소설연구』 제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10쪽.
 - 3 김미현, 「여성 지식인 소설 연구-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22호, 이화어문학회, 2004.; 서정자, 앞의 글.; 서정자, 「콜론타리즘의 이입과 신여성 기획-‘지식인 여성 노동자’ 등장과 ‘주의자 연애’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서정자, 「박화성과 조선희 소설에 나타난 ‘떠남’의 의미와 ‘북방의’-박화성의 『북국의 여명』과 조선희의 『세 여자』를 중심으로」, 『숙명문학』 제7호, 숙명문학인회, 2019.; 박선영, 「신여성의 내면 풍경-박화성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6호, 한민족문화학회, 2008.; 송명희, 「박화성 소설 연구-『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성숙의 플롯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이미림, 「박화성 여행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53호, 국어국문학회, 2009.; 이자화, 「1930년대 여성 인물의 의식 연구-박화성의 『백화』와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서여진, 「신여성-사회주의자-여성 장으로서의 작가 박화성」, 『현대소설연구』 제8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근대적 여성, 자유주의적 신여성과 차별화되는 민족적 계몽주의자로서의 여성상을 창출해냈으나, 주체성이 강화될수록 아니무스적 남성성을 발현한다는 이중적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과 ‘지식인’ 사이에서 유동하고 분열하던 근대 여성 지식인의 존재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남성 지식인과 상이한 조건 속에서 자기실현을 도모했던 여성들의 삶과 표상을 이해하는 길을 마련해준다. 한편 서정자는 콜론타이의 신여성론과 연애유희론이 사회주의 작가에게 끼친 영향에 주목하며 이기영의 『고향』과 『북국의 여명』 속 ‘주의자 연애’의 성격을 분석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북국의 여명』에서 그려지는 ‘주의자의 성, 사랑, 결혼’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진보적 성의식과 보수적 성생활이 공존하는 주인공의 양면성을 박화성 문학의 특수한 지점으로 포착했다. 최근에는 『북국의 여명』과 조선희의 『세 여자』를 겹쳐 읽으며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실천과 북국행의 의미를 고찰하는 등 서정자의 『북국의 여명』 연구는 변주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밖에도 신여성 표상의 한계, 성장소설적 플롯, 여행서사로서의 특징, 『백화』와의 상동적 문제의식 등에 주목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여진은 박화성 연구사에서 흔히 지적되어 왔던 계급 의식과 여성 의식의 분열 문제를 박화성의 단편소설 및 『북국의 여명』 속 사회주의자의 젠더 문제를 통해 해명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논의를 펼쳤다. 이처럼 『북국의 여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데 비해, 『벼랑에 피는 꽃』은 해방 이후 쓰인 박화성의 다른 장편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소설의 의미가 한차례 논의되긴 했으나,⁴ 이 문제는 『북국의 여명』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될 때 보다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선행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유교 가부장제와 근대적 젠더 레짐의 착종 속에서도 ‘집 안의 천사’가 되길 거부하고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나아간 신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이 사상적, 학문적, 직업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은, 목포, 경성, 천안(아산), 광주, 영광, 도쿄 등지를 오가

4 이미화, 「박화성 소설의 탈식민적 페미니즘 연구: 『벼랑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2호, 우리문학회, 2014.

며 학업, 직장, 가정생활을 전개했던 박화성의 이동 경로를 반영한 것이다.⁵ 박화성은 1918년 숙명여고보를 졸업한 후 보통학교, 야학, 학원 교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변경된 학제에 맞추어 1925년 숙명여고보 4학년에 편입, 졸업한 후에야 일본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의 서두가 각각 1920년대 초반 경성과 지방의 어느 읍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작가의 이력을 분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심인물이 각각 여고보 4학년생, 보통학교 교사로 설정되어 있는 점도 정확히 그러하다. 물론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에피소드의 실재성이 아니다. 다양한 공간의 경계를 넘나든 박화성의 체험과 정체성이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두 소설을 자전소설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장르적으로 볼 때 성장소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성장소설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서사물들을 지칭하는데, 교양소설, 형성소설, 입사소설, 발전소설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는 등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또한 각 지역 및 문화권에 따라⁶ 혹은 창작 주체나 주요 인물의 젠더에 따라⁷ “기성 사회에 대한 반담론”이나 “하나의 상징 권력”으로 기능하는 역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⁸ 여성성장소설이라는 개념은 남성과 달리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여성으로서의 성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 주인공의 특수한 조건에 토대를 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하에서 여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 상황들을 드러내며 여성성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⁹ 그래

5 「박화성 연보」, 『박화성문학전집2: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509-520쪽 참조.

6 최현주는 성장소설이 근대적 장르임을 논의하며, 한국 성장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근대성은 물론 한국 근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36-37쪽.

7 오정화, 「19세기 영국 여성의 “성장”과 성장소설의 역동성」, 『여성학논집』 제29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2. 참조.

8 최현주, 앞의 책, 39쪽.

9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여성성장소설」,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의 온라인 버전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529&cid=60657&categ>

서 여성성장소설들은 기성 사회로의 편입을 반드시 성장의 완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성의 성장은 미완으로 남거나, 기성 체제로부터의 일탈을 암시하거나, 나선형 궤도를 그리는 식으로 남성의 성장과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¹⁰ 그러나 모든 여성성장소설이 잠재적 전복성을 구현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성의 자기 성취가 지배 규범 및 질서로 회수되는 경우 서사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며 ‘여성성장’의 이중적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식민지 근대 극복을 위한 탈향-유학의 여정을 그려내는 한국근대성장소설의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주인공의 젠더에서 비롯되는 모순과 갈등, 저항과 봉합의 국면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성성장소설의 다양한 문법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젠더지리학이 제공하는 공간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여성성장소설의 특이성을 해명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젠더지리학은 “몸, 정체성, 장소, 권력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을 지도화함으로써 어떻게 다양한 억압들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공간 속에서 구현되고 또 이러한 공간을 통해 재/생산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지리학의 한 분야”¹¹로 정의된다. 질리언 로즈(Gillian Rose), 도린 매시(Doreen Massey),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등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기존 지리학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이론이자 지구화 시대 공간의 젠더화 현상 및 초지역적 정체성 문제에 개입하는 실천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젠더 관계가 지리학자들에게 핵심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젠더 구분의 사회적 구성에서 공간적 구분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안(사적인 것, 가정의 일, 여가와 즐거움, 소비, 의존성, 권력의 부재)과 바깥(공적인 것, 직장의 업무, 생산성, 독립성, 권력)의 이원론은 각각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통용되어 왔다.¹² 이에 따라 여성은 사적

oryId=60657 (제공처 국학자료원 <http://www.kookhak.co.kr>)

10 김미현, 「강신재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국제어문』 제28호, 국제어문학회, 2008. 참조.

11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페미니즘의 개념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동녘, 2015, 474쪽.

12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7, 39-40쪽.

공간에서 억압받거나 공적 공간에서 감시당했고 언제나 남성중심적 시선에 적합한 상태로 보여질 것을 강요받았다. 또한 시공간의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해 공적 성취와 실현의 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젠더지리학은 이렇듯 공간에 얽힌 권력관계를 연구하며 남성중심성을 해체하는 인식론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¹³

지리학과 페미니즘의 대화는 비단 지리학이라는 특정 분과학문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지리학에서 다루는 경관이나 표상의 문제는 문화적 재현물에서 구축되는 장소와 그것의 표현 문제로 치환 가능하다. 또한 몸의 결락¹⁴이나 장소의 모성화를 비판했던 여성 지리학자들의 담론들은, 여성 작가가 자신의 창작에 기입하고 보충하고자 했던 여성적 경험들에 적용될 수 있다. 린다 맥도웰은 “젠더 구분과 공간적 구분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드러내고 여기에 도전하는 것”을 젠더지리학의 “특수한” 목표라 밝혔으나¹⁵, 이는 여성 소설의 공간과 이동 문제를 다루는 문학 연구의 관심사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여성의 몸과 같은 미시적 공간을 비롯해 경성, 도쿄, 목포 등 지역 단위, 식민지제국과 국가 등 광역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이 상호 교섭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두 소설 속에서 다양한 공간이 연계되고 의미를 생산하는 양상, 그리고 1930년대와 1950년대의 시차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과 차이를 염두에 두며 공간과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사상 공간의 재구성과 전복적 성장: 『북국의 여명』

2.1 여성의 이동과 정체성의 전환

13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2011, 15-16쪽.

14 실증주의, 인간주의,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은 물론 초기 페미니스트 지리학에서도 몸은 타자화된 대상이었다. 몸은 정신에 대비되는 타자로서 억압되었고, 몸이라는 장소를 발견한 이후에도 기준을 남성 몸에 맞추거나 몸을 합리성과 경제 영역의 타자로서 다루는 관행은 여전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몸의 차이가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의 기초가 된다는 점, 몸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현미, 앞의 책, 484-486쪽 참조.

15 린다 맥도웰, 앞의 책, 38쪽.

탈장소와 이동의 경험은 정체성의 전환과 공간의 변용을 추동한다. 특히나 여성의 이동은 남성의 동선으로 구성되는 공식 역사와 연계되면서도 이와 변별되는 경험을 통해 장소의 고정화나 보편화로 수렴되지 않는 의미를 만들어내게 마련이다.¹⁶ 『북국의 여명』은 이처럼 전통적인 여성의 자리(home)를 떠나 이동하는 근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서두는 경성 여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나나’, ‘네이블’, ‘피넛’ 등을 간식으로 먹으며 공부와 진로, 우정과 연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학교, 도서관, 목욕탕, 여관, 친구 집, 거리, 경성역, 창경원 등을 삼삼오오 누비는 여학생들의 하루하루가 자못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학업을 위해 경성에 모인 이 여성들은 과연 보들레르가 묘사한 플라뇌르(Flâneur:산책자) 대열에 끼 수 있을까? 도시 군중 사이에서 익명으로 부유하는 플라뇌르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시가 주는 쾌락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익명성을 즐기는 왕자”¹⁷라는 젠더화된 표현이 드러내듯이 소설 속 여학생들은 산책자인 동시에 근대 도시 풍경 그 자체라는 이중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도시 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적 대상으로서 남성 주체들에게 음미되고 품평의 대상이 된다. 걷는 것만으로도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 언제나 연애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관행 등은 도시에서의 산책과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게다가 유독 여학생에게만 작동하는 학교의 규율은 전근대와 다른 종류의 젠더 분리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대 도시가 제공하는 해방과 억압이라는 논제만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해명하기는 어렵다. 신여성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 여학생들의 비전형적 내력과 이동의 양상이 보다 흥미로운 논제를 제기한다.

흔히 소설 속 신여성들은 경성 부호나 고관대작의 여식으로, 그리고 경성의

16 도린 매시는 여성이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의도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억류하기, 가두기 등은 일부 문화적 맥락에서는 여성을 종속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고 언급한다. 전통적으로 ‘집’은 여성의 장소로서 안정과 신뢰, 정통성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았다. 반대로 메트로폴리탄적 삶은 가정의 영역에서 가부장적 통제에 큰 위협이 되었다.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19-320쪽.

17 린다 맥도웰, 앞의 책, 268쪽.

전문학교 학생이나 일본 유학생으로서 재현되곤 한다. 백효순 역시 유년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딸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성의 여고보를 졸업하던 즈음 그는 집안의 파산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 그 후 K읍과 R읍으로 이동해 7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오빠의 학비를 충당하는데, 경성으로 다시금 진입한 다음에도 여전히 학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생하는 누이나 연민을 자아내는 소녀로 그려지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교사 생활이 오빠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번갈아가며 학비를 지원하자는 계약을 통해 지속되었다는 점, 주변 여성들과 스승-제자 관계를 형성하여 선생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십 대부터 굳혀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백효순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빈곤하고 무지한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민립학교와 야학 등에서 주로 여성 교육에 집중하며 보다 본격화된다. 공립학교가 식민지 통치성이 작동하는 교육기관인데 반해, 민립은 지역민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공식적 학교로 그려지며, 야학은 말 그대로 노동의 시간이 끝난 밤에 열리는 교육 장의 성격을 지닌다. 후자들의 경우 교육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만큼 일시적, 불안정적이지만 식민 권력의 커리큘럼과 일치하지 않는 자율성, 더 나아가 불온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민족이 아닌 젠더에 초점을 맞추며, 학령이 지난 여성들을 위한 대안적 공간을 창출해내는 백효순의 헌신적인 모습을 조명해 나간다.

1930년대 농촌의 취학율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들과 달리 딸은 공교육과 사교육 장에서 모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⁸ 공들여 키우기는 커녕 딸(의 육체)은 빈곤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것을 거스르는 이동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백숙희는 친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이 많은 남성의 후취로 ‘팔려 간’ 전력의 소유자이다. 아버지뻘 남성과 살며 밤을

18 1930년대 농촌 가정의 딸은 아들과 달리 학교나 서당에 취학하지 않아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글을 배운다 해도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비공식적 교육 기관에서 배웠다. 김부자, 조경희·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 여성들-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 교육』, 일조각, 2009, 291-320쪽 참조.

두려워하고 몸과 이동의 통제를 받는 백숙희의 유일한 낙은 야학에 오는 것이다. 기생인 설향-이경채의 경우에도, 홀어머니의 외딸로 살다가 첩으로 가기 싫어도 망친 이후 기생에서 후취로 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늙고 타락한 남성의 통제 속에서 (부모의)집과 (남성의)집을 오가며 가족을 부양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백효순은 이처럼 집에 갇힌 여성들을 경성의 학교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부모나 애인을 위해 희생한 것이니 장하긴 하지만 잘한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려니 하는 결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르친다. 이에 따라 백숙희와 이경채는 야학을 통해 여학원 본과 진학을 위한 지식을 쌓고 마침내 경성 입성에 성공한다. 여기까지 도달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대단한 성취를 이뤄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국의 여명』은 “여자도 사람이다”(나혜석)라는 선언이나 “교육으로, 실행으로”(이광수)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언이 그 자체로서 위력을 지니던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후에 나온 소설답게, 돈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되풀이하여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백숙희는 남편이 죽고 나서 학비 때문에 또다시 유부남의 첩이 되고, 이경채 역시 남편의 허락과 후원 속에서 경성에서의 학업을 이어간다. 결국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젠더 규범을 거스른 이들의 결단은, 역설적이게도 유사 결혼 혹은 결혼 관계가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실행 불가능한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백숙희와 이경채가 이 때문에 대놓고 비난받지는 않지만 더이상 성장하는 궤적을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백효순 역시 약혼자 최진의 돈으로 도쿄 유학을 떠났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은 내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그와 다른 여성들의 결정적 차이는 ‘사상의 합치’를 전제로 학비를 받았다는 점에 있다.¹⁹ 친오빠와 학업을 위한 계약을 맺었듯이 백효순은 최진과도 동지적 계약을 맺는다. “상대자의 진취와 향상을 방해한다든가 주의 사상에 변동이 생길

19 경성의 여학생 오순정 역시 백숙희, 이경채와 마찬가지로 생계 때문에 신의 없는 폐병 환자 김철수와 결혼을 감행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시가의 후원을 받아 도쿄로 이동하면서 사상적 전회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먼저 ‘북국’에 가서 M에 있는 백효순을 불러올린다. 서사의 초반에 어리고 나약한 형상으로 등장한 오순정이야말로 가장 크게 변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때” 주저 없이 결별하자는 것이 약혼의 조건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XX동경지회 최고 간부로 임명된 그의 활동에 최진이 이의를 제기하자 백효순은 학업과 약혼 관계를 동시에 중단한다. 백효순의 학비를 대기 위해 관립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최진으로서는 선(先)학업, 후(後)운동의 논리를 주장할 법도 하다. 그러나 표현만 부드러운 뿐 이 역시 타락한 가부장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이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 근거한 명령이다. 백효순이 이에 저항하며 과거의 유약한 “깍질”, 학비가 인생의 최대 근심이었던 자신을 벗어던질 수 있었던 것은 도쿄를 경유하며 일어난 변화-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⁰

백효순이 도착한 도쿄는 문명화된 도시나 제국의 수도로서의 장소성이 드러나지 않는,²¹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매혹도 민족적 비분강개도 환기되지 않는 곳으로 그려진다. 유학 초반에 백효순은 밤낮없이 영문학 공부에 골몰하는데, 여기서 영문학이란 보편적 근대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 특정한 지향성과 결부되지는 않는다. 그의 성장은 진보와 선진성을 담지한 사상 학습의 길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과거에 민립학교와 야학 내 여성의 공간을 만들었듯이 도쿄에서도 그는 자신의 하숙집을 정기적인 독서회 장소로 활용하며 여성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여성들의 스승으로 자처했던 과거와 달리 이 공간을 통해 지식인의 우월감과 계몽 의식을 청산하기에 이른다. ‘학교’와 ‘교회’가 전부였던 자신과 달리 ‘현장’에서 투쟁해 온 여성들은 머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이론을 이해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전문학생이라는 간판은 치워버립시다.”라는 발언 그대로 백효순은 “영어 단어”로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실천의 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랑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는데, 이전에 효순은 “상급학교에 가

20 백효순의 또 다른 열렬한 구혼자인, 캘리포니아 대학 유학생 채용식은 학비를 책임질 테니 자신과 함께 유학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다. 그러나 사상가-주의자가 아닌 채용식, 그리고 미국 유학이라는 선택지를 백효순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 소설의 남성 동지들은 모두 다 “동경유학생”이다. 여기서 도쿄는 여타 유학처들과 달리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전선으로서의 상징적 성격을 갖는다.

21 경성의 경우 낭만화된 봄밤 도시 풍경이 신여성들의 아름다움과 결부되어 묘사된다. 이 과정에서 근대성은 강조되지만 식민 도시로서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지 못하는 원한”에 골몰해 있느라 못 남성들의 구애를 귀찮게 여겼고 경성에서 긴밀하게 교류하던 여성들이 저마다 약혼과 결혼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성과 이념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도쿄의 남녀 동지들을 통해 자신의 “봉건적이고 인습적이고 관념적”인 면모를 자각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신뢰하는 “상현 씨의 친구들이니만치 다 좋은 사람일 테구 또 남녀가 그렇게 문란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두 무슨 성적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들이 아닐 테니까”²²라며, 이른바 “주의자 연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는 행동하는 투사인 김준호와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사랑-결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성이 학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입문 공간이자 자매애의 공간이었다면, 도쿄는 사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계와 전이의 공간이자 사랑이 성숙하는 동지애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2.2 역설적 공간의 창출과 ‘북국’의 지향

백효순의 고향 M은 이중적 장소성을 담지한 곳이다. 유년 시절의 행복한 풍경과 결부될 때는 노스텔지어의 장소이지만, 백효순이 경성에서의 1차 유학을 마치고 귀향한 시점부터 그곳은 폐허와 몰락의 장소로서 묘사된다. 아버지가 첩을 얻어 떠나면서 집과 가족이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인데, 식민 지배의 결과로 경관이 변화했다는 것도 큰 요인이다.

동무들과 갈대꽃을 꺾으러 다니던 별판과 별판을 줄곧 가로질러있던 좁은 길! 처음에는 학교에 다니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던 그 언덕길들! 지금에 그곳에는 괴물 같은 검고 높다란 굴뚝을 가진 고무공장과 양주회사(釀酒會社)가 서 있으니 지나간 어린 시절과 함께 고향의 옛 얼굴은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추석에 달 밝은 밤 관사 저고리 모시 다듬이 치마를 입고 관사 댕기에 가족신을 신

22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2: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363쪽.

고서 동무동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면서 땀기 끝 나풀거리고
신발 소리 발맞추며 뛰어 놀던 그 빈 마당! 이제는 비단 짜는 공장이 되
어 인조견 옷을 입은 큰아기들이 인조견을 짜느라고 기계 소리를 내며
밤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

작은 베니스라고 일컫던 맑은 호구같이 된 정거장 앞 바다!

옛날의 마음에 맞던 동무들과 여름밤에 그곳을 거닐며 미래의 희망
을 의논하고 청춘의 정을 속삭이던 그곳은 지금은 큰길이 되어 옛날의
그 동무를 태운 형무소 자동차가 재판소를 향하여 달음질을 치며(...) 무
배추를 깨끗이 씻어오던 뒷 바다! 이제는 망망한 넓은 들이 되어 빈민의
섬들이 들판 가으로 게딱지처럼 묻혀 있다가 여름 장마철에 밀물 속에
잠기어 허덕이면서 모든 병균을 전시가에 퍼치는 병균발전소가 되어 있
지 않느냐?

그리고 몹시 변하여버린 고향의 뽀뽀하고 반들어진 그 얼굴! 윤이 흐
르고 기름기가 돌고 불빛이 황홀하고 자동차가 밤새도록 목선 소리를
치고 달리며 카페 술집에서 돈을 침처럼 흘러버리는 청년 중년이 밤을
새워가며 환락하는 이 거리의 내장은 어떤가?²³

이렇듯 공장과 회사로 점령되었으며 청년 지식인들의 진보적 운동이 꺾멸되었고
타락과 환락에 몰들어가는 M의 현 모습은, 박화성이 단편소설 창작을 통해 여러
차례 펼쳐 보였던 목포의 풍경들을 종합한 것이기도 하다.²⁴

1897년 개항한 이래 도시 목포는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자본가 계급의 성장
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일상화되었고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
으로 한 지식인 청년들의 활동도 활발했다.²⁵ 그런데 박화성 단편소설에서 야학,

23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2: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132-134쪽.

24 『북국의 여명』은 경성, 도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알파벳 기호로 처리하고 있다. 그
러나 M을 묘사하는 가운데 ‘월출산’ 등 구체적 지명이 거론되고, 동향 사람이 ‘목포’에서 상
경한다고 언급되는 등 M은 추상화된 장소라기보다 오히려 현실의 목포를 강하게 환기하는
장소이다.

25 김종욱,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의 지역성 연구-동반자 작가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청년회, 사상 운동 등의 주동자로서 누이-연인-아내의 계몽을 이끌던 목포의 남성 지식인들은 1934년을 기점으로 점차 서사에서 영향력을 잃어간다.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을 위한 그들의 실천, 그리고 이를 향한 식민 권력의 억압은 감옥에 있거나 가게 되는 현 상태로 은유될 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박화성은 이를 간략히 처리하는 대신 감옥 밖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며 매일매일을 버티는 여성의 고통, 회한, 의지, 결단 등을 되풀이해서 그려냈다.²⁶

『북국의 여명』에서도 백효순의 오빠인 백남혁, 그의 동지인 백상현, 그리고 백효순의 남편 김준호는 상당 기간을 도쿄, 광주, M의 형무소에 감금된 상태로 처리된다. 그래서 『북국의 여명』의 후반부 서사는 백효순의 내면과 행위에 따라 전개되고, 이 때문에 단편소설들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여성의 ‘각성 이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도쿄에서 김준호가 수감된 후, 백효순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첫아이를 출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김준호를 기다린다. 그러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준호는 농민조합을 조직하다가 발각되어 둘째 아이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수감된다. 백효순은 시가 식구들에게조차 냉대를 당하자, 예전 동지들과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건사해 나가고 미결수로 있는 김준호의 식사를 차입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감옥 안의 남성’과 ‘밖에서 그를 보조하는 여성’은 남성 작가의 사회주의 소설과 전향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인물 구도이다. 이러한 소설은 사상운동과 수감, 출옥, 전향(후 직업 찾기) 등을 공적 경험이자 주요 사건으로 다루기에, 집과 아내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형상으로 반복 등장시키기도 한다. 이를 테면 전향소설 속의 집이 일종의 지옥으로 아내가 속물로 반복 재현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남성 자신의 모자람과 비겁함을 고발하기 위한 방법이라 해도, 집은 안식을 주는 곳이고 아내는 돌봄과 지지를 주는 존재이길 바라는 무/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집을 본질적 장소로 보았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장소론을 연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학회, 2014. 참조.

26 이러한 분석은 서승희,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호, 이화어문학회, 2021, 95쪽.에서 가져왔다.

케 한다. 모험의 출발점이자 돌아갈 안식처이며 돌봄의 장으로서의 집, 그리고 모성으로 전형화된 여성-주부상은 남성중심주의적 규범을 바탕으로 이론화된 것이다.²⁷ 그런데 『북국의 여명』은 집과 아내에 대한 남성의 환상을 그리는 대신, 남편을 감옥에 보낸 아내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남성 작가의 소설들과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준다.

백효순은 임신, 출산, 양육, 가사의 와중에도 남편에게 뒤쳐질 것이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며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김준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동지로서, 옥중에서 그가 받는 수난을 단지 밖에서 받고 있는 것이니 계속해서 싸우면 된다, “이런 고생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 염치 없는 사람들”이며 “이건 내가 해야만 할 고생”²⁸이라며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간다. 이때 백효순의 집은 돌봄과 양육의 장소일 뿐 아니라 노동과 투쟁의 장소로서의 양의성을 지니게 된다. 백효순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갖가지 노동을 하지만, 수감자의 아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게 된다.

이렇듯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생산과 재생산의 범주를 해체시키는 백효순의 몸은 남성중심적으로 낭만화되거나 성애화된 시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장소이다. 또한 이는 가시화된 운동부터 해체하고자 하는 식민 권력의 시선으로는 쉽게 해독할 수 없고 그래서 직접 제어할 수도 없는 저항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백효순의 몸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은 이러한 것이다. 남성 운동가들을 형무소에 감금하는 것으로 운동의 명맥은 사라지는가? 여성은 운동가가 될 수 없는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정치성을 떨 수 없는가? 백효순은 형무소의 바깥, 그리고 집 안의 투쟁을 통해 고향 M이 완벽한 폐허일 수 없음을, 오히려 폐허에서 싹트는 가능성들이 있음을 증명해 나간다. 이는 당대는 물론 이후에도 종종 삭제되거나 가시화된 사회주의자 여성—아지트키피, 하우스키피로서 불리던—의 돌봄과 조력 행위를 정치화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질리언 로즈는 역설적 공간(paradoxical space)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중

27 질리언 로즈, 앞의 책, 126-127쪽.

28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2: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457쪽.

심적 지리학으로 포착될 수 없는 모순된 공간을 논의한 바 있다. 공사 분리에 도전하는, 젠더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두루 고려하는 차이의 공간이 그것이다.²⁹ 백효순의 몸과 가정은 이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서 김준호의 수감 생활을 조력하는 동시에 혁명가로 자처하는 여성의 주권과 욕망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처럼 균열하고 유동하는 공간은 젠더 관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투명한 공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실천들을 추동해낸다. 김준호의 전향과 가출옥 이후 백효순은 ‘북국’을 향해 떠나는 한층 더 전복적인 행보를 내딛는다. 전통적으로 대의를 위해 집을 떠나는 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재현되어 왔고, 그것이 세간의 상식이었다. 또한 전향소설의 경우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잡고 가족을 먹여 살리라며 남편을 압박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로서 그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백효순은 타락한 동지-남편은 물론 집과 아이들마저 일거에 버리고 집을 나간다.³⁰ 이러한 결단은 매우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돌봄과 가사노동을 생물학적 본능이나 사적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사상에 의거한 실천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선택이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은 직접 낳은 아이는 물론 유모로서 키운 아이와의 이별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졌는가, 오랫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준 미국 유학생 채용식의 마지막 구애를 어떻게 거절했는가를 조명함으로써 백효순의 북국행이 스위트홈의 행복을 떨치고 어렵게 감행된 실천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백효순의 성장은 사회주의자 남성들과의 만남과 이동을 통해 단계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남성 없는 여정을 시작한다. 그가 만주국 도문(圖們)을 거쳐 도달하게 될 ‘북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중국인지 소련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북국은 이미 이동해간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서, 또 다른 시련과 갈등이 올지라도 이전의 집-가정 내 투쟁과 변별되는 연대와 실천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 점에서 『북국의 여명』의 진정한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상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9 질리언 로즈, 앞의 책, 339-349쪽.

30 이는 박화성의 개인사와 일치하지 않는 상상적 결말이다. 박화성의 첫 번째 남편 김국진은 수감 생활을 끝내고 간도 용정에 교원 생활을 하러 떠났다. 그러므로 북쪽을 향해 간 것은 오히려 김국진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은 박화성이었다.

3 민족국가의 시공간과 모성 신화: 『벼랑에 피는 꽃』

3.1 공간 재배치와 집단기억의 재/확인

1920~3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삼는 『북국의 여명』과 달리 『벼랑에 피는 꽃』은 1920~50년대 중반이라는 보다 긴 시간대에 걸쳐져 있다. 전작이 식민성 문제를 간접화하며 근대 공간과 여성 투사의 성장을 동시대적인 것으로서 조명하고 있다면,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식민지 근대를 재현하는 『벼랑에 피는 꽃』은 민족주의적 지평에서 여성 교육자의 성장 과정과 그 결과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공간 배치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우선 주인공 현석란의 고향이 충청도로 전환된다. 여기서 고향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만큼 특정한 로컬리티와 무관한 곳이다. 또한 경성에서의 여학생 시절이 회상으로 간단히 처리되고 도쿄에서의 유학 생활도 대폭 축소된다. 대신 경성 및 서울의 비중이 확대되며 결혼 생활과 직업의 근거지로서 중요성을 확보하게 된다.

『벼랑에 피는 꽃』은 C읍에서 A읍으로 전근 가는 소녀 교사 현석란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된다. 상대 학교의 교사 간 엄문설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이동을 하게 되는 에피소드는 전작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 것이며, 전근지에서 만난 남성 교사에게 구애를 받는다는 설정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작에서 백효순과 약혼한 최진이 이에 해당된다면, 『벼랑에 피는 꽃』에서는 김인문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조정해 등장한다. 현석란은 A읍으로 이동한 후 성별과 연령 때문에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도착하자마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양반’의 집을 거처로 배정받은 것도 그러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동료 교사들 모두 석란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무시와 향유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전근대적 관습이 여전한 시골에서도 현석란은 굴함 없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현석란에게는 전작의 백효순처럼 돈이나 인간, 진로 때문에 노심초사하거나 흔들리는 내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그려진다. 그런데 이렇듯 주체적 면모는 여성성을 둘러싼 갈등, 협상, 숙고, 결단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정에 가까운 것으로서 묘사된다. 게다가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폐

미니스트적 영향력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인문을 비롯한 남성들에게 ‘귀엽고’ ‘천진하다’는 찬탄을 유발하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김인문과 현석란은 남녀 사이의 호감은 물론, 불령선인(不逞鮮人), 즉 독립운동을 한 조선인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감정을 교류해 나간다. 현석란은 경성에서 공부하던 시절 삼일운동에 참가해 잠시나마 투옥됐던 경험이 있고, 김인문 또한 길으로는 공립보통학교 ‘수석훈도’의 위치에 있지만 비밀리에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그 후로도 이 문제 때문에 투옥돼 장기 복역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운동은 그의 인격과 품성을 증명하는 표지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당찬 귀여움’와 ‘지사적 순정’으로 정리될 이러한 캐릭터 설정은 독자 대중에게 쉽게 각인되기 위한 유형화 작업을 거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밖의 주요 캐릭터들의 경우에도 유형화된 성격을 지니는데, 가령 현석란의 언니와 결혼하는 사업가 최재호는 ‘불같은 열정’, 훗날 현석란의 남편이 되는 의사 임성운은 ‘엘리트적 냉철함’으로 대표되는 존재이다. 김인문, 최재호, 임성운은 현석란과 사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과연 누가 아름다운 여성을 쟁취할 것인가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때 『벼랑에 피는 꽃』의 전반부는 『북국의 여명』에 비해 대중성과 가독성이 강화된, 보다 잘 쓰인 신문연재소설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글의 목표로 돌아가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벼랑에 피는 꽃』이 젠더 구분을 넘어서는 이동의 서사를 구축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배 규범이 규정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자면 『벼랑에 피는 꽃』은 탈장소의 정치성이나 공간의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작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경성, 도쿄, M, 광주, 현석란의 고향, C, A, 해방 후 서울 등으로 나누어지는 이 소설의 주요 배경들은 포스트식민 냉전 국가의 장소 정치³¹에 따

31 장소 개념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지역과 공간의 대안으로서의 장소를 주장한 인간주의 지리학,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논의한 비판적·구조주의 지리학, 그리고 장소론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장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장소의 정치’라는 표현은 인간의 보편 장소 경험에 초점을 둔 인간주의 지리학보다는 “장소란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장소의 형성 과

라 성격이 재조정된 공간들이다. 예를 들어 『북국의 여명』에서 고향 M의 로컬리티³²는 노동·사회주의 운동의 근거지라는 공간성과 여성 투사라는 정체성이 겹쳐져 생성된 바 있다. 이는 개항장이나 식민 도시라는 공적 명명으로 포괄할 수 없는, 백효순이라는 여성의 실존과 행위가 개입되면서 새롭게 창출된 의미이다. 그러나 『벼랑에 피는 꽃』은 가변적 로컬리티를 실험하기보다는 민족국가의 집단 기억에 수렴되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현석란의 어머니는 M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독립운동의 성지인 광주라는 공간과 결부된 존재로서 그려진다. 광주학생운동 당시 졸업생의 일원으로 활약하던 어머니는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다가 병을 얻어 사망한다. 형무소에 수감된 어머니를 현석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 조국의 자태다. 조국이 피폐하고 병들어 있는 모습이다.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소생할 수 없는 조국과 그의 딸들이다.”³³ 어머니의 몸, 광주라는 로컬, 조선이라는 민족, 나아가 대한이라는 국가는 하나로 연결되며 성소화된 공간성을 만들어낸다. 반면 M은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고 관계적이지도 않으며 역사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공간”³⁴,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오가는 공간으로서만 거론된다. 전작에서 살펴보았듯이 M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진보적 사상운동의 기억은 계급적 맥락 때문에 민족적 집단기억의 계보에서 탈락한 것이다.

한편 도쿄의 경우 선진 사상의 수용처에서 중립적 과학의 학습처로 성격이

정에는 권력의 문제가 개입된다”(111쪽)는 점에 주목한 비판적·구조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을 염두에 두고 썼다.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푸른길, 2016, 81-119쪽 참조.

32 로컬리티는 “삶의 터로서의 로컬(공간)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시간)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이며, “매우 유동적이고 중층적이며, 권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것”으로서 정의된다. 문재원,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 인문학』 제1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308쪽.

33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 5: 벼랑에 피는 꽃』,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278쪽.

34 이 구절은 비장소(non-places)에 대한 마르크 오제의 설명에서 빌려온 것이다. 마르크 오제, 이윤영·이상길 역,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97쪽. 비장소란 전통적인 인류학적 공간과 달리 어떤 정체성, 관계, 역사와 관련을 맺지 않는 초근대성(현대사회)의 공간,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공항, 대형마트, 호텔 등과 같이 교통, 통과, 상거래 등의 목적과 관련해 구성된 공간을 가리킨다.

전환된다. 현석란은 ‘동경여고사 수리과’ 3학년이 되도록 공부만 하느라 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으며 유학생들이 집결하는 기독교회관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의 관심사는 민족 독립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로 일상이 채워진다. 그런데 민족 독립의 열망은 도쿄에서 촉발된 변이라기보다 소설의 모든 인물이 처음부터 공유하는 전제에 가깝다. 이 소설의 도쿄는 특정한 장소성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대중 서사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랑의 줄다리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임성운과 김인문은 번갈아가며 현석란의 하숙으로 찾아와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흥미를 자아낸다.

그러나 현석란의 귀국 이후 서사의 대중성은 현저히 약화된다. 현석란의 어머니가 임성운을 딸의 배필로 지정하면서 사각 관계의 재미가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데다, 현석란의 행복한 결혼 생활 대신 파탄의 과정이 서사의 중심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남편 임성운이 요정의 마담 및 간호사와 연이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현석란은 집을 떠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은 교육자로서의 독자적 실천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현석란은 강습소로 허가받은 문리학원을 효성여자상과학교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작가 자신이 후기에서 “식민지 교육 정책과 소위 ‘대동아전쟁’ 때에 우리의 학원이 받던 수난의 편린(片鱗)을 미약하게나마 나타내려고 부심(腐心)”³⁵하였다고 밝혔듯이 이는 민족 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저항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다. 이때 소설의 모든 인물들은 비타협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임성운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닌데, 사실상 현석란의 학교는 임성운의 재력으로 기틀을 잡게 된다. 민족성 말살의 위기 속에서 부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서울로 시공간이 전환되어서도 일관되게 이어지는 특징이다. 서울은 공적 역사의 무대일 뿐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과 감정, 행위의 공간으로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미소 군정 설치, 주요 요인 암살, 총선거, 학제 변경, 정부 수립, 반민특위, 여순사건, “육이오 괴뢰군” 남침, 피난, 부산의 임시학교, 환도 등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현석란은 학교를 지키고 확장하

35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 5: 바람에 피는 꽃』,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472쪽.

는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벼랑에 피는 꽃』의 후반부는 공동체성을 재확인하는 민족 서사로 전개되며 교훈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3.2 학교 만들기와 확대된 모성

현석란은 어린 시절부터 “진실한 교육자”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던 인물이다. 십 대 때에는 학생들을 동생처럼 생각했고, 학위를 받은 후 부임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자식처럼 돌봤다. 한편 남편이 산부인과를 개업한 이후에는 전시체제하 물자난 속에서도 산모의 영양 보충과 회복을 위해 애썼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현석란의 ‘타고난 당당함’에 교사로서의 일관된 면모, 특히 나 왜 여성 교육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를 추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을 낳은 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거든요. 남자들의 일생을 지배하는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성이거든요?”

“지배라? 그건 어째가 있는데?”

“표면으로야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내면적으로는 음양으로 남편이 아내의 지배를 받지 아니치 못하거든요.”(…)

“그러니 어머니로서 아들의, 아내로서 남편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여성들의 자각과 노력과 계몽과 능력이 만전을 기하는 날엔 일당백이 아니구 뵈이겠느냐 말씀이예요.”(…)

“아니 그럼 여성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없다는 말인가?”

“없기야 어떻게 전연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욕심이라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여서 내 자녀를 훌륭한 인간이 되게 할까 하는 희생적 이타적인 고귀한 욕심이거든요.”

“고귀한 욕심이라?”

“그럼요.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내 민족을 복되게 할까 하는 희생적인 욕심으로 정치를 할테니 오죽이나 밝은 정치겠어요?”

“과연 그렇게만 된다면 여성들에게 한 번 영도권을 주어 볼 일이야.”³⁶

인용문은 도쿄 하숙집에 찾아온 임성운과 현석란의 대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현석란은 조선 여성이 식민 지배와 남성 본위라는 이중의 탄압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독립 국가가 수립되면 여성 인재부터 등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성의 잠재적 능력과 주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 자신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성을 이타성으로 본질화하는 이상, 여성의 탁월함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 남편, 민족, 나라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석란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여성을 위한 공간 만들기는 『북국의 여명』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녔다. 차이가 있다면 백효순과 달리 현석란은 ‘정식’ 학교를 건립했다는 점이다³⁷. 백효순은 자신이 만든 커리큘럼으로 첩과 기생, 농촌의 가난한 처녀와 부인들을 가르치며 자매 관계를 맺었고, 도쿄에 가서는 여성 활동가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사상의 동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족으로서의 여성, 예컨대 조선 여성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는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조선의 차이보다는 빈곤한 여성으로서의 계급적 공통성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 가족 때문에 희생하는 여성은 식민지와 제국의 차이를 막론하고 상존하기 때문이다. 백효순의 오빠인 백남혁의 일본인 연인 기미꼬 또한 가족을 책임지느라 기생이 된 자로서 백효순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벼랑에 피는 꽃』에서는 무산계급, 성 노동자, 만학도 등으로 설명될 여성들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현석란과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은 모두 엘리트이며 ‘정상가정’의 어머니들이다. 도쿄에서 함께 유학한 오관숙, 유치원 선생님이로 일했던 현석지의 공통점은 훌륭한 성품과 지성의 소유자라는 데도 있지만, 그들이 결혼하게 되는 남성들이 과거 현석란의 구애자였다는 사실

36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 5: 벼랑에 피는 꽃』,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205-207쪽.

37 현석란의 학교는 해방 이후 효성여자중학교·고등학교로 차례대로 모습을 바꾸며 명실공히 여성교육재단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나간다.

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관숙은 독립운동가 김인문의 옥바라지를 불평 없이 해내고, 현석지는 해외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대던 최재호를 십 년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들이 희생정신으로 지켜낸 남성들은 가정 안에서는 믿음직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정 밖에서는 남한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지식인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현석란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여성 엘리트와 이를 모델로 삼는 학령기 학생 집단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곳은 민족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비 아내-어머니를 양성해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전후 복구의 과제와 현모양처론이 맞물리던 1950년대 지배 담론을 반영한 공간이라 풀이할 수 있다.

오관숙, 현석지와 비교해볼 때 소설의 주인공인 현석란은 다소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사적 생활을 기준으로 볼 때 현석란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보지 않은 비(非)열정의 소유자이다. 전작의 백효순 역시 다른 여성들에 비한다면 자유롭지 못한 성 관념의 소유자였지만, 현석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섹슈얼리티가 완벽히 제거된 형상을 띠고 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는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참된 행복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결국 현석란은 생물학적 모성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학교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강조한 이타성으로서의 여성성을 체현(embodiment)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그가 마침내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야말로 의미심장하다. 출산과 양육을 경험한 백효순이 모성을 버리고 성장했다면,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지 않은 현석란은 모성을 통해 성장을 완수한 셈이다.

여기서 모성은 식민지 시기 박화성이 반복하여 그리던 오빠-누이 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계몽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북국의 여명』에서도 오빠와 누이의 관계는 단편소설에서 그려지던 사제 관계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 바 있다. 백효순은 오빠와 그를 둘러싼 유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상을 습득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에 대한 진정성 면에서 오빠보다 월등한 존재로 그려졌다. 그래서 형무소에 갇혔던 오빠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서사는 자세히 전하고 있지 않다. 백효순이 가르쳤던 기생 이경채와 동거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적

인 일상이 언급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벼랑에 피는 꽃』에서는 이념의 동지인 오빠가 부재한 채 어머니-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석란의 ‘확대된 모성’은 민족지사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에 값지며, 학생들에게 계승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정신대에 앞다투어 자원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이를 “잔다르크”의 애국정신에 빚대어 치하하는 김 인문의 연설은 장차 제2의 현석란, 제3의 현석란이 탄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다만 『벼랑에 피는 꽃』은 애국을 담론화하면서도 한국전쟁의 시련 혹은 공산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술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를 반공주의와 연계해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은 것이다.³⁸ 소설에서 체감되는 한국전쟁의 비극성은 학교의 실질적 재원이었던 임성운이 납북되었다는 사실 정도이며, 오히려 부산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임시 효성학원의 저력을 강조하는 한편 전쟁의 상처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서 다루고 있다. 실제로 휴전 성립 이후 석란의 미국 시찰을 계기로 들어온 기부금, 학생들의 건축 기금, 그리고 동창생들의 활동, 각계의 찬조에 힘입어 효성학원은 새로운 교사를 짓는다. 이때 효성여고는 수리과에 특성화된 학교로서 ‘서울대학교’에 졸업생들을 대거 입학시키고, 입학 이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남한의 여성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된다. 교육 사업의 성공은 전후 남한의 복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현석란이 공장을 시작한 형부에게 “딸라 한 짐 잔뜩 지구 오셔서 빨리 새집 짓기루 합시다.”라고 썼듯이 복구와 성장을 향한 희망은 이제 ‘딸라’라는 키워드로 표현된다. 물론 이는 냉전체제하 새로이 형성된 미국의 장소성과 맞물리는 것이다.

4 계급과 민족, 성장의 도달점과 의미

38 사회주의 경력이 있는 문학인들이 해방 이후 남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최정희와 박화성의 차이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세대, 출신, 학력, 젠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식민 기억을 선별, 재배치, 강조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나, 박화성 장편 소설이 연구의 공백에 남겨 있었던 것을 볼 때 여전히 남겨진 과제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투사로서의 여성과 교사로서의 여성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다룬 소설이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짚지는 못했지만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은 서술 방식의 차이로도 비교의 논점을 제기한다. 『북국의 여명』은 사건의 순차적 전개를 방해하는 잦은 회고, 많은 대화, 초점 화자의 전환 등으로 인해 대단히 복잡한 서사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벼랑에 피는 꽃』은 등장인물의 숫자와 중심사건을 대폭 정리한 데다 대중성과 계몽성이 균형을 이루는 장면 구성을 통해 신문연재소설의 미덕을 발휘하는 소설이다. 이러한 차이는 작법의 능숙 여부를 넘어서 공간 배분의 특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질리언 로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국의 여명』은 “요동하고 상처받고 제약당하고 비틀거리는 여성의 공간 경험”³⁹을 더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고, 『벼랑에 피는 꽃』은 크고 작은 공간들의 의미가 중첩되고 연계되며 최종적으로는 민족국가의 공적 공간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거나 애매한 의미를 발신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여성과 공간의 문제에 주목하여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이 지닌 여성성장소설의 구조와 함의를 짚어보았다. 이제까지의 연구사에서 『북국의 여명』은 여성 지식인-사회주의자의 일상, 학문, 사상을 재현해낸 흔치 않은 텍스트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인물의 이중성과 결말의 비현실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소설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볼 여지가 있다. 『북국의 여명』의 중심인물인 백효순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몇 단계의 변화를 겪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특정한 장면을 근거로 인물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도쿄 공간을 매개로 성, 사랑, 이념에 대한 백효순의 인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고향 M의 로컬리티를 재창출하는 양상을 통해 결말의 북국행이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몸-가정의 정치화에서 이어지는 사상적 실천임을 해명해 보았다. 이 소설은 박화성이 단편에서 충분히 형상화하지 못했던 여성 사회주의자의 내면과 욕망, 행위들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벼랑에 피는 꽃』은 식민 기억을 매개로 쓰인 여성의 일대기라는 점에서 포

39 질리언 로즈, 앞의 책, 330쪽.

스트식민 페미니즘 서사로 해석된 바 있으며, 충분히 그렇게 읽힐 소지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이 『북국의 여명』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계급의 문제를 은폐하는 대신 민족의 문제를 부각했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에서 도쿄와 M은 사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항일독립만세운동의 근거지인 광주가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일제 말기 수난의 현장으로서의 경성, 해방의 환희를 거쳐 한국전쟁의 시련을 이겨낸 서울이 민족-국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현석란은 이성애 및 생물학적 모성과 무관한 몸의 소지자이나 어머니로부터 계승 받은 민족애와 사회적 모성을 실천함으로써 교육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나 젠더지리학의 통찰로부터 배웠듯이 민족국가라는 최종 심급으로 수렴되는 여성의 성공은 공사 이분법에 근거한 투명한 공간론을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벼랑에 피는 꽃』을 여성의 주체성에 반(反)하는 서사로 간주해야 할까? 『북국의 여명』에서 『벼랑에 피는 꽃』으로의 이행, 혹은 『북국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의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적 문제나 작가 개인의 이력을 넘어서 시대의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벼랑에 피는 꽃』이 그러했듯 포스트식민기에 등장한 민족 서사는 일제의 억압에 초점을 맞추어 수난과 저항,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승리를 공식처럼 형상화하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누락되는 것들이 있다. 냉전체제하 대한민국에서는 환류될 수 없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물리적 이동과 상징적 이동을 통해 변모하는 질서와 정체성의 문제들이다. 『북국의 여명』이 검열로 인해 민족의 독립에 괄호를 친 채, 그리고 사상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그려내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차와 이동의 시공간들이다. 반면 『벼랑에 피는 꽃』은 지극히 가부장제적인 ‘1950년대적’ 상황에서 여성이 공적 공간에 기입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다고 할 수 있다. 현석란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학사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존에 남성의 것으로 여겨졌던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 실용성과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 소설은 여성의 새로운 입지로 가늠하고 있다. 이는 전후 남한의 기성-여성 작가로서 박화성이 자신의 위치를 다지기 위해 전략적으로 택한 문학적 논제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벼랑에 피는 꽃』의 성장소설적 함의는, 포스트/식민 서사의 반복과 차이라는 본 연구의

논제에 더하여 1950년대 박화성 문학이라는 구도 속에서 다시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화성, 『박화성문학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단행본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474쪽, 484-486쪽.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36-37쪽, 39쪽.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6, 81-119쪽.
김부자, 조경희·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 여성들-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 교육』, 일조각, 2009, 291-320쪽.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19-320쪽.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7, 38-40쪽, 268쪽.
마르크 오제, 이윤영·이상길 역,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아카넷, 2017, 97쪽.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2011, 15-16쪽, 126-127쪽, 330쪽, 339-349쪽.

논문

- 김미현, 「여성 지식인 소설 연구-박화성의 『북극의 여명』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22호, 이화어문학회, 2004, 115-137쪽.
_____, 「강신재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국제어문』 제28호, 국제어문학회, 2008, 209-235쪽.
김종욱,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의 지역성 연구-동반자 작가로서의 위상과 관

- 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학회, 2014, 207-236쪽.
- 문재원,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인문학』 제1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305-314쪽.
- 박선영, 「신여성의 내면 풍경-박화성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6호, 한민족문화학회, 2008, 149-173쪽.
- 송명희, 「박화성 소설 연구-『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성숙의 플롯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301-328쪽.
- 서승희,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할: 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旱鬼)」,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호, 이화어문학회, 2021, 89-118쪽.
- 서정자, 「‘주의자’의 성, 사랑, 결혼-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자유연애의 양면성」, 『현대소설연구』 제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89-112쪽.
- _____, 「콜론타이즘의 이입과 신여성 기획-‘지식인 여성 노동자’ 등장과 ‘주의자 연애’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7-35쪽.
- _____, 「박화성과 조선휘 소설에 나타난 ‘떠남’의 의미와 ‘북방의’-박화성의 『북국의 여명』과 조선휘의 『세 여자』를 중심으로」, 『숙명문학』 제7호, 숙명문학인회, 2019, 218-240쪽.
- 오정화, 「19세기 영국 여성의 “성장”과 성장소설의 역동성」, 『여성학논집』 제29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2, 3-35쪽.
- 이미림, 「박화성 여행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제153호, 국어국문학회, 2009, 287-312쪽.
- 이미화, 「박화성 소설의 탈식민적 페미니즘 연구: 『벼랑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2호, 우리문학회, 2014, 291-320쪽.
- 이자화, 「1930년대 여성 인물의 의식 연구-박화성의 『백화』와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55-77쪽.
- 서여진, 「신여성-사회주의자-여성 가장으로서의 작가 박화성」, 『현대소설연구』 제8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91-323쪽.

인터넷 자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529&categoryId=60657&cid=60657> (제공처 국학자료원 <http://www.kookhak.co.kr>)

Abstract

The Gender Geography of Women's Growth Novels during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s

—A Study of Park Hwa-seong's *Dawn of the North Country* and *A Flower on a Cliff*

Seo Seunghui

Dawn of the North Country and *A Flower on a Cliff* are novels that were first serialized in newspapers, and they both reinterpret the biographical history of Park Hwa-seong. They were first published in 1935 and 1957, respectively. Both novels are so-called “women's growth novels” that make critical interventions into pre-modern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the modern dichotom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nd the resulting division of space and gender distribution in Korean society. These novels, however, also contain many differences. *Dawn of the North Country* is grounded in Park Hwa-seong's political beliefs, which resembled the socialist ideology of the colonial period. In contrast, *A Flower on a Cliff* exists on the horizon of colonial memories and nationalism, which had eradicated the diversity of ideologies and ideas.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the two novels by employing the methodology of gender geography to focus on spatial arrangements in the context of changing gender dynamics. While *Dawn of the North Country* is centered around the cities of Mokpo, Tokyo, and Gyeongseong, as well as the sense of place of the “North Country,” *A Flower on a Cliff* attaches importance to Gyeongseong-Seoul while considerably diminishing the spatial prominence of Mokpo and Gyeongseong. The former novel moves along a trajectory from literature to ideology and from sisterhood to comradeship while dismantling the stereotypes of women's bodies, families, caring, and upbringing; in this way, it sheds new light on women's ideological practices. In the latter novel, the characters and spaces are placed within the history of hardship and resistance of the colonial period and embody the success of elite women educators as an essential condition of national development. The two novels offer a chance for readers to examine the diverse grammar of women's growth novels

by revealing the aspects of contradictions, conflicts, resistance, and repair derived from the gender of the main characters in different ways while repeating the patterns of modern Korean growth novels depicting the journey of leaving home and going overseas for study to overcome colonial modernity.

Key words: Park Hwa-seong, women's growth novel, gender geography, *Dawn of the North Country*, *A Flower on a Cliff*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